

‘소년체전 대표 3명 배출’ 수문초, 육상 미래 이끈다

광주시청 실업팀 출신 한정미 지도자 합류 육상부 규모 확대...꿈나무 육성 산실 도약

“아이들이 육상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초등 육상 육상학교인 수문초등학교가 꿈나무 인재 발굴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소년체전 대표 3명을 배출하며 육상 명문학교로의 도약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문초는 빛고을초, 송정초와 함께 광주에서 단 3곳뿐인 초등 육상부 육성학교다. 지난 2013년 육상부 창단 이후 13년간 유망주 발굴과 기초 종목 육상에 힘써오며 지역 초등 육상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의미 있는 변화도 맞았다. 여자 400m 한국 정상급 선수로 활약했던 한정미 지도자가 지도자로 합류하면서 육상부에 활력이 더해졌다.

광주체종과 광주체고를 졸업한 한정미 지도자는 광주시청 육상팀에서 11년간 활약한 지역 육상 간판이다. 제95회 전국체전에서 400m 우승과 함께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전성기를 열었다. 제105회 전국체전 믹스릴레이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며 종목 도입 3년 만에 공식 인정된

첫 한국 신기록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의 합류 이후 육상부 규모는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다. 선수들은 오전 등교 전 기초훈련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광주체고 트랙과 필드에서 종목별 집중 훈련을 소화하며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 결과 성과도 있다.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 대표 3명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소년체전에는 100m 정승현, 포환던지기 박소현(이상 6년), 80m 이지한(4년)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100m 대표 정승현은 최근 예전 대회에서 13초02의 개인 최고기록을 세우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올해 12초대 진입과 전국소년체전 메달 획득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소현 역시 “첫 전국대회 경험을 발판 삼아 다음 대회에서는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다. 박민속 교장은 선수들



28일 광주 수문초등학교 육상부실에서 한정미 지도자(오른쪽)가 학생들과 함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의 훈련 환경 조성과 안전 관리, 진로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육상부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민속 교장은 “육상은 아이들이 신체 단련을 통해 자신을 조절하고 긍정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라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노력의 결실을 맺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자산이 된다. 앞으로도 육상

부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했다.

지역 육상계 역시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육상연맹은 최근 수문초를 찾아 운동화 등 훈련용 물품을 지원했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초등부 선수들과 이들을 헌신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을 격려한 것. 학교와 지도자, 지역 체육계 지

원이 맞물리며 수문초는 단순한 학교 운동부를 넘어 광주 육상의 미래를 키우는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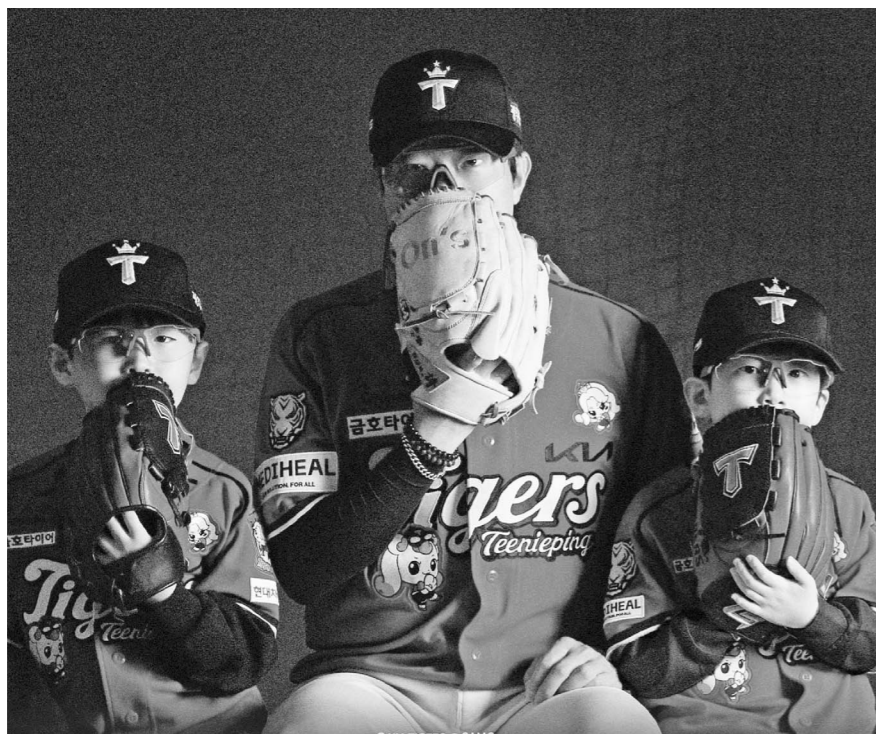
김민주 광주육상연맹회장은 “육상은 모든 스포츠의 근간이 되는 기초 종목이다. 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중·고 연계 육상 시스템의 뿌리인 초등

학교 육상팀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육상연맹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5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아시안드주 경기장 등 55개 경기장에서 개최. 40개 종목 1만8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어린이날 ‘티니핑’ 함께 이벤트 ‘풍성’



시체육회, 첨단파크골프장 편의 시설 확충 긴급 임시화장실 설치 등 불편 최소화

광주시체육회가 첨단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을 마무리하고 5월 재개장 준비에 나섰다.

2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첨단파크골프장과 대상파크골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임시 휴장 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비 기간에는 전문적인 잔디 관리와 코스 정비를 비롯해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임시 화장실과 그늘막 설치, 위험 구간 안전망이 새롭게 설치됐고, 기존 쉼터 보수와 휴게 교체, 목재 외자 추가 설치도 병행됐다.

특히 다음 달 1일 재개장을 앞두고 이용객 수요를 적극 반영한 편의시설 확충이 눈길을 끈다. 주 이용층인 어르신은 물론 최근 이용이 급증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상파크골프장 후문 인근 약 300m 지점에 임시 화장실을 긴급 설치하



는 등 세심한 환경 개선에 힘을 쏟았다.

시체육회가 운영 중인 첨단체육공원 내 첨단파크골프장과 대상파크골프장은 각각 다양한 난이도의 9홀과 18홀 코스로 조성됐다. 우수한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광주는 물론 타 지역 이용객들도 찾는 파크골프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첨단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활체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부상 날벼락’ KIA, 카스트로 대체 외국인 물색

롯데전 1루 수비 과정서 부상 햄스트링 부분 손상 6주 진단 “새 외인 타자 영입 준비 중”



KIA타이거즈가 부상으로 이탈한 외인 타자 해럴드 카스트로의 대체 선수 영입에 나섰다.

KIA는 28일 “카스트로가 햄스트링 부분 손상으로 6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 대체 외인 선수 영입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카스트로는 지난 25일 롯데와의 주말 2차전 경기에서 1루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뒤 3회 수비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해 교체됐다. 1사 상황 김도영의 송구를 받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다리를 찢은 게 확인이었다. 그는 당일 병원 검진을 진행해 햄스트링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다.

결국 26일 롯데와의 주말 3차전을 앞두

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이후 검진 소견이 잇달아 27일 교체 확인을 진행했다. 여기서 6주 진단을 받아 장기 이탈이 불가피해졌다. KIA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대체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다.

올 시즌 KIA에 합류한 카스트로는 메이저리그 통산 450경기 타율 0.278의 킥백 능력으로 기대를 모았다. 스프링캠프에서는 첫 경기부터 큰 타점을 터트리기도 했다. 다만 정규리그에서는 23경기에서 88타수 22안타 2홈런 16타점 타율 0.250 OPS(출루율+장타율) 0.700으로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KIA는 27일 내야수 이호연을 1군 엔트리에 포함시키고, 28일 외야수 한승연을 풀업했다. 한승연의 데뷔 첫 1군 등록이다. 2022년 2차 8라운드 75순위로 KIA에 등지를 트 한승연은 올 시즌 퓨처스리그 27경기에서 101타수 33안타 2홈런 20타점 타율 0.327을 기록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통해 모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경기장 안팎 이벤트 역시 풍성하다. 선수단 포토콜은 어린 시절 사진으로 꾸며지고, 선수단은 시리즈 4경기에서 티니핑 컬래버 유니폼을 착용한다.

이날 교대 이벤트와 프린스핑송 특별 공연, ‘티니핑 보물찾기’, 홈런 세리머니 이벤트 등도 팬들을 기다린다. 캠핑 곳곳에 숨겨진 쪽지를 찾는 이벤트인 ‘티니핑 보물찾기’에서 당첨 가린이에겐 선수단 사인 모자가 증정된다.

가린이를 위한 선물 또한 마련됐다. 시리즈 기간 관람객 전원에게 티니핑 젤리가 제공되며, 어린이날 당일 어린이 팬 전원에게는 티니핑 랜덤 피규어 키링이 증정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설영우 골·이태석 도움 홍명보호 풀백 경쟁 ‘후군’

2026 북경 월드컵 최종명단 발표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홍명보호의 ‘키 포지션’인 측면 수비수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의 풀백 설영우는 지난 27일 소속팀 츠르베나 츠르베나(세르비아)의 2025-2026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33라운드 홈 경기에서 골 맛을 봤다.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설영우는 팀이 2-0으로 앞서서 후반 42분 츠르베나의 3-0 승리에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렸다.

중원에서 티미 막스 엘스니크가 넘겨준 패스를 받아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땅볼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수비수들이 달라붙었지만 간결한 몸놀림으로 각도를 만들어내고서 슈팅했다. 자신감과 여유로움이 동시에 붙어내는 골 장면이었다.

츠르베나가 이날 승리로 리그 9연패를 확정해 설영우의 활약은 더욱 빛났다.

왼쪽 수비수 이태석도 소속팀 아우스트리아 빈(오스트리아)에서 같은 날 공격 포인트를 작성했다.

슈투름 그라츠와의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9분 오른쪽에서 올린 ‘택배 코너킥’으로 틸라 라보리치의 선제 헤더 골을 도왔다.

이태석은 지난해 여름 오스트리아 무대에 진출해 팀의 핵심 자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설영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기에 풀타임을 뛰면서 리그에서만 3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로써 홍명보호 최종 승선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설영우, 이태석에 더해 김문환, 이명재(이상 대전하나시킴), 엔스 카스트로프(핀란드) 등이 측면 수비수 자리를 두고 경쟁해왔다.

여기에 스리백의 왕백으로는 양현준(셀틱), 엄지성(스완지시티)도 될 수 있다.

홍 감독은 5월 16일 월드컵에 나설 26인의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